

## ▶ 의생활

## ‘Art to Wear’전시에 나타난 국내외 예술의상의 유형별 분석 연구

-1995~2004년까지의 광주비엔날레 국제미술의상전시회를 중심으로-

유 명 의\* (동신대학교 문화관광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의상은 착용자의 내면을 표현하고 또 동시대인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상징적 기호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의 미의식과 심리를 반영하는 다양한 표현수단으로서 시대적 문화적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상은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초 의상을 포함시켜 이루어졌던 예술분야의 많은 움직임들이 의상을 다양한 형태로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Aesthetic Movement”는 예술계의 미적 개념과 기능적 개념이 하나로 조화가 되는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한 바 있다. 이로 말미암아 직물과 의상을 순수예술과 동등한 예술로 인정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당시의 예술가들은 회화, 연극, 무용 등을 통해 새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의상과 직물 표현에 주력하였다. 이후 의상은 고도의 산업화와 더불어 빠른 변화를 겪게 되면서 산업과의 관련으로 예술보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쪽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의상의 예술 운동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Art to Wear Movement’현상으로 관심이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수미술의상행사인 광주비엔날레(1995-현재)에서 ‘국제미술의상전시회’가 10년 동안 5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1995년에서 2004년까지 약 10년 동안의 광주비엔날레 국제미술의상전시회에 전시되었던 국내외 작가들의 ‘Art to Wear’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5회에 전시된 작품 350여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이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로는, 작품의 Theme, Item, 소재, 실루엣 과 국내작품과 국외 작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는 ‘Art to Wear’의 조형성, 상징성, 착장성, 이미지 등을 분석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유럽 및 미국의 ‘Art to Wear Movement’와의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Art to Wear’는 크게 wearable art to wear 와 non wearable art to wear로 분류되었다. 작품의 Theme, Item, 소재, 실루엣 등에 있어서는 비엔날레의 전시주제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으며 국내와 국외 작품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보였다. 현대의 ‘Art to Wear’의 경향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예술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반영하고 있었다. ‘Art to Wear’의 조형성, 상징성, 착장성, 이미지 등을 분석에서도 국내와 국외의 작품 및 전시차수에 따른 변화를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Art to Wear’와 소재, 실루엣, 조형성, 상징성, 착장성, 이미지에서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이다. 창의적 능력이 가장 각광을 받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인체에 잘 맞고 또 심리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의상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바탕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의상이 만들어진다. 본 연구는 제 2의 피부로서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의상에 대하여 매일 입는 실용적인 면,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심리적인 면 못지않게 중요한 인간의 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예술적인 측면으로서의 의상을 ‘Art to Wear’전시 출품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벽에 걸어놓고 감상하는 회화나 조각 작품보다도 인체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의상이 예술이라면 문화예술에 자연스럽게 다다갈 수 있으리라 본다. 더구나 현대는 문화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의상도 상품의 진열장에서 뿐 아니라 예술의 한 아이템으로서 앞으로 많이 확충이 될 박물관 및 갤러리에서 빈번하게 전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 연구를 계기로 ‘Art to Wear’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전문가의 탄생으로 ‘Art to Wear’분야 더욱 큰 발전을 기대한다.